東亞日報
朝刊 今日夕刊合十二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振替口座 京城 八二〇〇番
電話 光化門 一九〇〇

社說

豫想되는 飯米飢饉

三月一日現在 現存米의 多寡는 米價와 米穀問題에 그러나 米穀統制에 關한 三月一日現在 現存米의 調査를 ...

獨逸膺懲은 微溫的?

戰爭의 危機極力回避

道義的問責以上은 期待키 困難한 形勢

聯盟理事會압둔各國代表들 經濟制裁에는 모두 反對

【런던十三日發同盟】 로카르노 小委員會는 十三日夜 白國代表 반제란드首相 提出의 覺書를 檢討하엿는데 覺書의 趣旨에 基하야 英、佛、白、伊 四個國 政府는 戰爭의 危機를 極力回避하기로 意見이 一致하엿다고 解釋되다 따라서 獨政府에 對한 膺懲策은 戰爭을 誘致치안흘 程度에서 微溫的範圍로 限度되리라고 觀測된다

歐洲危機調整코저 聯盟緊急理事會

라인保障條約이 有効를 確認

委員會任命對策檢討?

會議는 多岐多端

佛外相國際記者團에 發表

英이든外相提案

獨逸의 會議加入을

먼지撤兵해야된다고 佛外相應酬

佛代表部斷念

條約國會議에

英佛間直接交涉決定

蘇聯代表者英佛外相과協議

라인進駐에 反對

軍事外交經濟各相

獨逸國民紙幣에서 逃避

獨逸經濟特使

巴里에서 活躍

北中을現狀대로 放置할수없다

磯谷武官宋氏와會談

新海軍條約

無期延期대로流産?

有田大使에게 歸國命令

朝鮮을除하고 外地人事異動

伊太利、多數의 軍艦製造中

豫算報告書로判明

共産軍太原에切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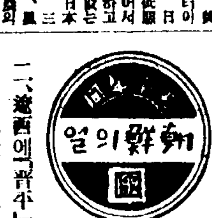
形勢去益重大化

今後積極的으로進出하면 日本도 積極的援助方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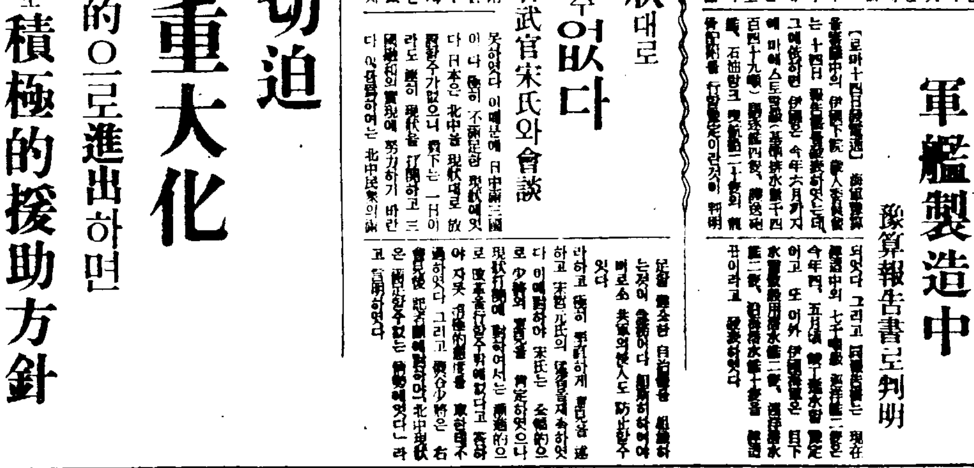
百濟의 海上發展 (五)

鄭寅普

二、遼西에 晋平郡을 開置함 (二)



皮膚病
警戒季!
春暖과함께潛伏하여잇든 皮膚病菌이再發蔓延한다
慢性的인무좀 버짐에苦惱하는분 아스다－를진작에발러두면今年再發生을 豫防합니다－
아스다－는皮膚에合하여듭어潛伏菌을殺滅하므로慢性皮膚病과가려운몸철의부스럼等에良効를奏하고그우에絶對로無刺戟安全하야痛痒도없어지는故로
特히婦人、小兒의 柔肌에는理想的－
아스다－



齒痛이건
우는어린이 웃는얼굴
정말잘듣는다
수治水

ClibPDF - www.fastio.com

二千餘名의 勞働者 西北朝鮮에 輸送
南朝鮮細窮民救濟策

총독부 사회과에서는 작년에 남조선지방의 궁민구제대책으로서 북조선지방의 서북조선으로 수용을 행하고잇는데 금년도에도 공사가 개시되엿으므로 오는 十九일오전十시부터 총독부 제三회의실에서 각도의 노동자개사무담임자를 소집하고 금년 四月부터 실시할 금년도 제一차이주 二천명이송방법기타에 대한 회의를 하기로 되엇다. 여기 부의할 사항으로는

一、本年度勞働者移動에關한件
一、移住勞働者待遇에關한件
一、移住民의 移住條件에 關한件

그리고 二천명중 一천五백명은 북조선에 五백명은 서조선으로 이주할터이라한다.

京城—新義州 直通電話工事

경성신의주(京城新義州)간직통전화신설(一회선과 중계) 三회선의 공사는 금년도 예정으로 공사는 협찬으로 인하야 공사가 지연되엇으나 이미 공사도 끝낫으므로 치에 착수되어잇던 그러므로 예정과같이 三월말까지에 공사가 순조되어 四월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土木工事에 北村보다 南村의 置重은 何故?
不正事件 頻發은 待遇不良?
豫算審議府會第四日

경성부회 제四일은 十四일오후二시三十분부터 개회되어 즉시 一반회계 경상부 세출예산(一般會計經常部歲出豫算)의 심의에 드러갓엇다. 벽두 森내무과장은 十一년도 예산은 부회장인 府尹答案의 이라는 간단한 설명이 잇엇다. 심의를 앞두고 편성한 만큼 방대 … 금번부터 부의된 五 … 한 수에 답하엿으나 부당으로서는 신중히 연구하야 세웟것이라는 간단한 설명이 잇엇다.

매원의 여수당을 받게되엇다. 그러나 부의원은 부민을위하야 부정(府政)에 관계하고 잇으므로 그와같은 다액의수당을 받을필요는없을가한다.

○○○○ 금후 회의가 자주열릴것을 참작하엿으므로 문제삼을것없다 라는 답변이잇엇다.

다음 十一번도 사무에는 五十년도에 비하야 五萬三千四百六十二萬一千六百六十원에 달하야 작년에 비하야 증가된것이며 또 신로 그와같이 늘게된것은 사무의 팽창으로 인구여의 사무비 七萬九千四百四十二원은 四월에 개설되는 영등포(永登浦)용산(龍山)동부(東部) 부 출장소의 사무비로계상한것이라는 설명이 잇엇다.

○○○○ 一、신편입구역의면리원을 전부 부리원으로 채용한다하니 과연 그들이 부리원이 될만한 자격을 구비하고 잇는가?

二、부에서 은급(恩給)을 받는 현재를 많이 채용한다하니 그들이 과연 오는날 사회에 적응되는 인물들인가? 그보담은 새로히 교문을나오는 청년들을 채용함이 어떠할까?

라는 문제로 인사행정을 통렬하게 …

○○○○ 一、신편입구역의 면리원중에는 상당한 자격자들이 잇으므로 그들의인물에 대하야 의심할점은 없다.

二、금년에는 새로 교문을나오는 청년들을 주로 채용키 위하야 벌서 채용시험을 보엿다. 금후에는 새로운 인물을 많이 쓰겟다.

이 답변의 뒤를 이어 이달(伊達)부윤은 인사행정은 로쇠한 인물이라 배격할것은 없을것이다. 적재적소(適材適所)주의를 「못토」로삼는것이 가장 타당할것이다라는 부 인사행정에 대한 변명비슷한 말이잇은후 一시 휴게에 드러갓다.

○○○○ 이번에 부내의 동리명(町名)을 一율적으로 정(町)으로 고친다하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

○○○○ 그 문제는 도청(道廳)에서 결정한다. 부에서는 입되는구역의 군면의 그에관한의견과 부청의의견을 모아가지고 도에보냇으므로 아마 얼마 아니되어 그에대한 발표가 잇을 것이다 라는 답변이잇자 사방에서 발언권을 요구하는 인부윤은 그에관한 질문이 나올것을 짐작하엿음인지 심의조항의와 문제에대하야서는 별다른 결론 주지안켓다 선언하엿다.

○○○○ 一、서부파에 감사계도를 설치한것은 부정사건이 잇기 때문이다 금후 서부파사무가一층 확장되드라도 一인의 감사원으로 서부파의 부정사건을 미연에 막어볼수잇는냐?

二、같은범죄를 마준 인물들이 같은일급을 받는 형식이면서도 一방은 五十원을받고 一방은 百원을받는다 즉 가봉제도(加俸制度)로 균형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것이다. 이문제는 총독부정책에 변경이없기 전 가봉제는 바랄수없으나 부당국에서는 가봉을 얼마라도 늘이는데 노력하겟다.

○○○○ 금후에는 다시 부정사건이 잇지 안흘것이다.

○○○○ 두번의 고려할것을 약속하다 라는 답변으로 사무비 심의는 끝낫다.

그후 토목비(土木費)로 넘어가서 정당(町堂)토목과장으로부터 토목예산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잇은후

○○○○ 부에서는 금년도 토목예산(예정)을 얼은것으로 알고잇으면 그렇다면 어찌나?

○○○○ 토목예산은 적을 얻은 예상으로 알고 잇으므로 심의중 부담을 염려는 없을을 믿는다는 답변이 잇고 그뒤를 이어 토목파장 역시 같은 답변을 하엿으나 앞으로 중대 파란이 이러나리라는것을 예상케하엿다.

○○○○ 토목행정(土木行政)은 북촌보담 남촌에 치중하는 것같으니 어찌된일이냐?

○○○○ 그에관하여서는 임시부세출예산 심의시에 자연 알게될것이다.

중대한 문제가 잇으면 어찌 하려는가?고 동 예산에 대하야 세는 가장밤은 리원질문 一금의 질문을 더욱 외형은 없는다 동대문서서 잇는것을 어떠케나 타내엇다.

螢雪의 積功
各專門校卒業生

米國留學二名
延專卒業生六八

연희전문학교(延專) 제十八회 졸업식은 十四일오후두시반 동교에서 거행한바 금년도 졸업생은 문과(文科)에 五十명, 수물과(數物科)에 八명, 상과(商科)에 十명 합 六十八명이다. 졸업생씨명과 취직상황은 다음과갓다.

▲文科 趙義用 金大均 金炳斗 林鳳圖 閔鳳受 宋邦鎬 崔順鎬 李有聖 李廷鎬 李景範 李存榮 李東錫 李敏九 …

就職 教育界 一、言論界 一、大學及其他上級校入學二、米國留學 二、家事 一、交涉中 …

▲商科 …

▲數物科 …

就職=官公署三、銀行會社 六、教育界一、商工自營七、上級學校 …

二十六名卒業
◇京城保育學校

경성보육학교의 금년도 제八회 졸업식은 十四일 오후七시반부터 정동예배당 강당에서 거행한바 금년도졸업생은 전후 三十六명으로서 그 씨명은 다음과 같다.

(上)延禧專門卒業生一同 (下)京城保育學校卒業式

愛人에게 채우고 專門生飮毒
곤인 거짓말이 탄로되자 재물九錢어치먹이

하라는 공부에는 힘을 쓰지안코 거짓말로 순진한 처녀를 꾀어 연애관계를 맺어오다가 필경 정체가 탄로되어 애인에게 배척을 받고 음독자살을 꾀하는 것것없는 희생이 잇다. 본적을 논산군 연산면 사포리(論山郡連山面沙浦里)에 두고 현재 가회동(嘉會洞) 三十七번지의 三호에 유숙중인 모전문학교 二년생 최경림(崔景林)(二六)은 十四일 오후五시十분경 자기방에서 『양잿물』 九전어치를 먹고 신음하는것을 주인집 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세부란스」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 가하엿으나 생명에는 관계없게 되엇다 한다.

그가 자살하려든 원인은 그는 원래 방탕한 소질의 소유자로 시골서 약종상(藥種商)을 하여 근근히 학비를 보내주는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작년六월경 운니동(雲泥洞) 一一六번지 전정자(田貞子)(二〇)를 자기는 모군주의아들로서 매월五十원씩 학자를대주겟다는 거짓말로 꾀어 지금까지지내왓던 한다.

그러나 그의정체는 필경 이지음 탄로되어 거정자는 그와같이하므로 그것을비관하고 그와같이 자살을 꾀한것이라한다.

占처준다고 貴金品도적질
늙은女子窃盜被逮

【안성十四일발동맹】 일정한주소없는 신수점(身數占)쳐준다고 벗자레(申甲禮)(六〇)라는 여자를 체포하고 부내 각 가정을 드나들며 귀금속만을 전문적으로 절취하던 여자도적이 경찰에 체포되엿다. 부내 중로서에서는 十五일오전 一시경 一정한 주소가 없는 신갑

이번 비의 流氷으로 광나루交通杜絕

十三일에 온 봄비에 얼음이 녹는데다가 녹아서 떠나려가는 유빙(流氷)으로 말미아마 한강상류 광나루(廣壯津)는 통행이 막히엇다고한다.

하야 엄중히 취조중인데 그는 지난十三일오후七시경 신수점을 쳐 주겟다 빙자하고 효자동(孝子洞) 八三번지 윤한홍(尹漢洪)의 집에 나타나 금비녀 一개와 현금 十六원 약二、三十원어치의 귀금속을 사 내 각처 二十여가정에 드나들며 취한 근래드믄 여적이라한다.

鴨綠江解氷
◇氷上通行禁止◇

【新義州】 지난 十四일 신의주경찰서에서는 다 여 압록강 얼음이 해빙되기 시작하엿는데 十三일래 압록강 도선중 얼음 함몰되어 적방 불명이 된자 五명이 잇는 통로 방상통 … 안동서에서는 十四일 빙상통과를 금지하엿다.

廿年間의 京城人口 十六萬三千名增加
現在每人當居住面積十八坪
每年萬一千의 增加率

경제제도(經濟制度)의 개변으로 조선의 세태(世態)도 자연이 변하야 최근의 조선은 인구동태(人口動態)에 잇어서도 대변혁을 일으키고잇다. 즉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해마다 짙어진다는것인데 그 실상을 가장 솔직히 증좌하고잇는 도시는 곧 경성이다. 작년말 경성부의 조사한바에 의하면 경성부의 인구는 四十四萬二千二百인에 달하야 지난 대정三년 부정(府政)실시의 인구 二十四萬一千八十五인에 비하면 실로 二十년동안에 十六萬三千一百十七인이 증가하엿으며 최근十년동안의 매년인구 증가율을보면 매년 약一萬一千명씩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잇다.

이 四十만인구의 현거주면적(居住面積)은 七百五十三萬八百二十一평에 달하야 一인당 十八평六합의 면적을 차지하고잇는데 오는 四월一일 부확장안이 실현되면 확장구역의 인구 二十三萬二千六百五十二인이 들어오게되므로 경성부의 인구는 一약 六十三萬六千八百五十四인으로 격증하게 된다.

이 六十여만인구의 지금까지의 증가경향을 기준하야 三十년후의 경성부의 인구동태를 살펴보면 그 총수는 一百十四萬一千四百八十六인에 달할것이라는바 그때는 현 경성부내의 인구가 七十萬一千여인이될것이며 확장구역의 인구가 四十四萬여인에 달할것이라한다.

그리고 그百十여만의 거주상태는 부확장안 실현후의 경성부의 거주가능면적(居住可能面積)은 二千八百萬八千七百七十三평에 달할것이므로 一인당평균 주거면적은 약二十五평 가량에 달하야 一인주거 이상의 면적인 三十평에 비하야 다소 부족을 느끼게 될것이라 한다.

自轉車盜難

十四일오후八시 四十분경에 부내 주교정(舟橋町) 二六八번지 일화부(日華富)씨 정민정(鄭民井)의 소유자전거 경성(京)六四五六호를 그앞에 두엇든바 도난당하엿다고 소관본정서에 계출하엿다.

今日卒業式

▲京城醫學專門病院 오전十시반 시구문밖 무학정 농교에서

日曜講話

▲中央教會 (낮)成功의秘訣 金永燮氏 (밤)大夢을覺하자 金永燮氏
▲覺皇寺 圓覺의妙境 朴漢永氏
▲南大門外教會 (낮)先驅者의終末 金在善氏 (밤)精神的行路 高明宇氏
▲京城教會 (낮)服從中의勝利 …
▲石燈洞拜堂 (낮)新生命 (밤)十字架上의勝利 李鍾洙氏 朴鍾燁氏 尹昌錫氏
▲○○教會 (밤)未定 申公淑氏 金履善氏
▲○○教會 (낮)開拓者의實力 金○○氏 (밤)定罪함이 잇는가 …
▲○○教會 (낮)어떠케하면 좋은사람이될가 … (밤)우리의 자랑할것 李洪植氏
▲梨花○○ (낮)○○○ 아펜셀나氏
▲○○教會 (밤)信者의 입을뜻 …

오늘의 天氣

조왓다 흐렷다 합니다

(陰)三月十五日(日曜日) (陰)二月二十二日(丙申)
日出前六時四五 日入後六時三九
月出前○時三二 月入後十時○八
滿潮 仁川 前九時一○ 後九時一五 釜山 前一時一一 後一時二○ 鎭南浦 前○時四五 後一時三○

휴지통

▲저리 귀찮은 시골길에도 말리서 이화에 시가지 정탐한 경성의 지의 쿠로 달러 한다 ▲피롱이 부족한 제군의 가슴을 틔게하지 ▲이러고보니 통행인과 운전수들 간에 때로는 어떻까지 이러나서 피차 얼골을 붉으라 나리라 하는 일도 흔히 눈에 띠는 것이엇다.
▲十二일 본정경찰서에 고소까지 내게된 고소인 고시정(古市町)四三번지 국유설(鞠有雪)와 조일태시(朝日駄市)사이에 생긴일도 이런 종류의 것이엇다. ▲고소장에 나타난바에 의하면 고소인이 경성역에서 나와 통행로로 횡단하라할 지음 마침 김창락이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남대문쪽에서 질주하여 오다가 하마 트면 충돌할뻔 ▲이것이 꼬투리가 되어 운전수와 통행인사이에 말이 오고가고 하는통한 운전수가 입에 못담을 욕질을하드니 ▲바로 그부근에 잇는 자동차부에 가서 봉로 二명을 다리고와서 작당코구타를하야 치료 一주간의 부상을 입엇다고 ▲피고소인인 운전수의 말을 들으면 진상이 어떠케 뒤집힐는지는 모르되 통행인과 작당하고 통행인을 구타 했다는 것만은 허가 맥혀이라도 변명하지는 못할것이 아닌가

紙上올림픽 陸上篇 ⑤
陸上에도 黃禍論
興味는 伯林大會의 日獨戰

一九二八年 第九回 世界올림픽大會가 암스테담에 열렷을때 日本은 十五點으로서 米、芬、獨、英加、瑞典、佛、諸國에버금가는 第八位를얻엇고 一九三二年의 第十回世界올림픽이 로스엔젤스에 열렷을때는 三十一點을얻어서 米、芬、英、獨에 버금가는 第五位이엇다。그다음으로 四年을지난 오늘에 日本은 第二位를 目標로 躍進하고잇어 運動界의「黃禍來」를 絶叫하는 獨逸의말이맞는 感이잇다。

▲走高跳 1존슨(米)2米03(×)▲2朝隈(日)田中(日)2米01(×)▲4메트칼프(濠) 코토카스(芬)2米(×)▲6스비쓰(米) 오스본(米) 베레사로(芬)1米98(◎×)

▲走幅跳 1오엔스(米) 8米13(◎×)▲2비코크(米)8米 (◎×)▲3올슨(米)7米84▲4田島(日)7米74▲5라이홈(獨)7米73 ▲6보르(佛)7米70

▲棒高跳 1그레이버(米) 4米41(◎×)▲2브라운(米) 4米30(◎×)▲3미드(米)4米30(×)▲4西田(日)4米30▲5大江(日) 4米25▲6문베리(瑞典)4米15

▲三段跳 1大島(日)15米54▲2메트칼프(濠) 15米12 ▲3오펜보(米)15米30▲4戶上(日) 15米34▲5原田(日)15米30▲6라엿사리(芬)15米28

▲投砲丸 1토란스(米) 16米08(×)▲2베르케(獨) 16米33(×)▲3라이만(米) 16米7(×)▲4비릅(에스토니아)16米5(×)▲5단(米)15米80▲6다라니(匈) 15米77

▲投槍 1야르보넨(芬) 74米30(×)▲2스테크(獨)73米85(×)▲3니카넨(芬)71米70▲4토이보넨(芬)69米74▲5와이만(獨)69米9▲6로카이스키(波)68米32

▲投圓盤 1슈레더(獨)53米10(◎×)▲2안더손(瑞典) 52米30(×)▲3탄(米)52米1(×)▲4베리더(瑞典)50米75(×)▲5카벤터(米)50米11(×)▲6람베르트(獨)50米24(×)

▲投鐵槌 1오카라간(愛)56米7(×)▲2도레이(米 55米20(×)▲3안손(獨)55米11(×)▲4베르헤레(芬)55米6(×)▲5안나마(에스토니아)5米5(×)▲6 람(米)52米5(×)(終)

◇明日 監督本領助教授、助監督野上、坂口、主將若林、顔山野外山本(入選者)松本、村山、高木、勝浦、山口、齊藤、大藏、豊島井澤、熊井、池田、松本、伊藤、木村、上田、田中、川越、林、趙、池田林、鈴木、月川

▲日程 三月二十三日 東京發、二十四日 神戶港 우랄丸便으로 二十七日 大連上陸、二十九日 對大連醫大戰(大連)、四月一日 對全滿洲學生聯合軍戰(大連)、三日 對滿洲國體代表戰一回戰(大連)、四日 同第二回戰(奉天)、七日 滿洲國國幣代表戰(新京)、九日午後二時五十分京城着、十日對京城戰(京城)、十二日 對京城總督戰(京城)、同夜發 東京에

朝鮮서 最初 硬式卓球
YMCA主催大會

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 主催의 第九回 全朝鮮卓球大會는 四月三日午前十一時부터 鍾路靑年會館에서 行할터인바 參加資格은 爲本卓球聯盟加入者에 限하야 四月二日午後四時까지 參加金 十錢을 가주어 鍾路靑年會館으로 申請하라고한다。

使用球는 TY球及公認球로서 特히 今年부터 朝鮮에最初로 第一回로 硬式個人選手權도 決定한 터이라는데 이는 자국國際的으로 行하는 卓球를 朝鮮에最初로行하는 것이다。

冬季올림픽會場 十八日에 決定

日本體協에서는 四年後 第五回 冬季올림픽이 日本에 招致된다는 前提아래 來十八日 午後四時부터 丸之內 中央亭에서 冬季올림픽招致場 選定委員會를 開催하고 決定하기로되엿다。그러고 五月 二十日부터 八日間 白木屋에서 올림픽展을 열터이라고한다。

運動界動

▲法專을 今春에卒業한 運動選手의就職決定된것은 다음과 같다。
庭球部 趙誠錄、太完燮(殖銀에) 李正來(殖銀에)、田隱秀(鐵道局에)、蹴球部 金耀宅(漢銀에) 卓球部 梁聖翊(和信에)

早大럭비팀 朝鮮來征日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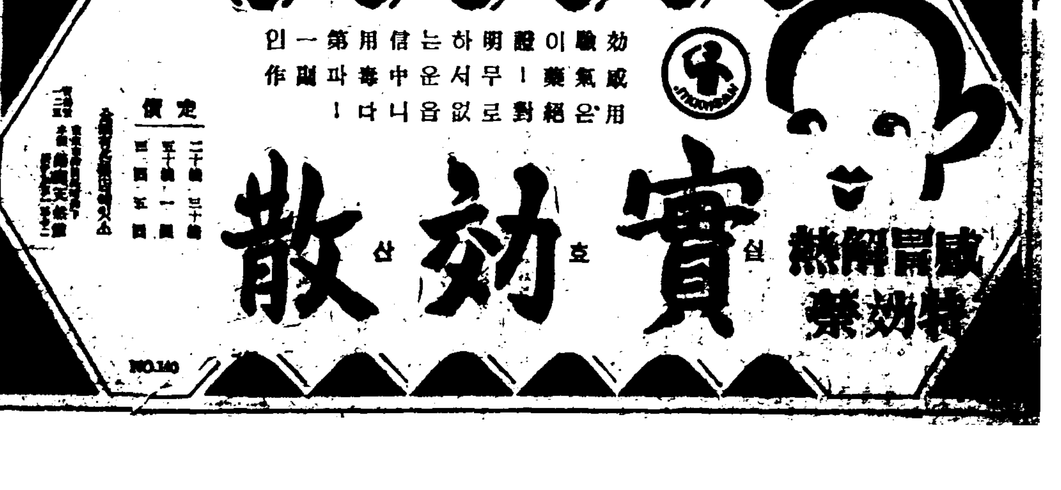
早大럭비部는 朝鮮及 滿洲럭비協會의 招聘으로 滿洲와 朝鮮에 遠征케되어 大連、奉天、新京、京城等地에 轉戰케된바 一行은七日午後四時 高田牧舍에서 다음의 멤버와 日程을 다음과같이 決定發表하엿다。

今日의 運動

▲럭비 京城一京師戰 午後二時半 龍山球場

流行歌 이한장으로
逸才全壽麟의 面目躍如!
全壽麟傑作集
金福姬 李圭南
빅타 四九四○○番二一ー호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好의 二大名畵 三月十四日부터 三日間大公開
朝鮮映畵 新作 이규환監督 李圭煥氏 監督 作品 金蓮實 主演 … 僧房悲曲
◇前 … 母性의秘密
… 現代劇 街の旋風兒
… 時代劇



地方論壇
蔚山普校學級增設問題
蔚山 一記者

蔚山公普校의 學級增設問題는 지금까지 數年之前부터 不斷의 懸案이던 바 더 나아가 蔚山 人士의 敎育熱如何를 疑心치 안흘수 업는 問題이다. 人口 一萬七千을 包容하야 郡內의 大邑으로서 蔚山의 兒童 就學 現狀은 小學校 兒童 收容問題와 밋 입학난의 懸案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바 이 問題에 對하야 當局의 根本的 解決이 업는 것은 遺憾이다.

너머나 蔚山人士가 子弟敎育에 對하야 等閑하지 안흘가 한다. 蔚山公普의 해마다 募集하는 入學定員은 男女 合하야 百二十名인데 志願者 數는 이 倍나 되며 그 中 半數를 收容치 못하는 現狀이라고 한다. 昨年度의 收容은 男 四五 … 如何히 對策을 세울 것인가 하는 問題는 當局과 人士의 共同責任이라 할 수 잇다.

公益? 企業? 兩說로
産組의 定義論戰
관진씨는 기업단체라고 이심
當局은 半營利半企業主張

【부산】 경상남도 내에 산업조합은 치열하야 이미 三十四개소에 조합이 결성되어 앞으로도 만히 조직되게 되엇는데 산업조합이 어떤 단체인가? 하야 당국자에 산업조합의 정의를 질문하자 관진(管鎭)씨는 산업조합은 기업단체라고 인식하고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변명에 대하야 당국은 산업조합은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라야 하며 기업단체이지만 공익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답변하엿다.

지난 十一일에 관진(板田)의원의 질문이 산업조합이 공익단체인가? 그러치 아니하면 기업단체인가? 하야 당국자에 산업조합의 정의를 질문하자 당국의 답변은 인적(人的) 결합의 정신적 단체라고 하야 …

卄四集團農場
設置키로 決定
수용호수는 二천여호
間島省民政廳에서

【간도】 간도성민정청(間島省民政廳)에서는 간도성내 오지와 농촌에 집단적으로 영농하지 아니하면 곤란한 곳에 반관(半官)의 집단농장을 설치하야 자작농을 창정키로 되엇으므로 금년 중에 二十四개소의 집단부락을 설치하고 수용호수 二천四百五十호의 인구 一만여명을 수용하리라는 바 소요의 집단부락 건설비는 三만五천八백五十五원으로 반관반민의 비용으로 하리라 한다.

집단부락에 수용할 이주민은 대개 집단부락 건설주보지 부근 농민을 수용하기로 되엇다.

농우, 농구, 식량, 종자 등은 지난 당국에서 저리로 대부하기로 되엇스며 각 부락에 자위단을 설치하야 반란에 대비케 하리라 한다.

大成中學普樂會變更
【오정】 간도성 대성중학교(大成中學校)에서는 동교우회 주최와 본보 후원으로 순회연극을 조직하야 十四일부터 연주를 개최한다는 바 그 일정은 아래와 갓치 변경되엇다 한다.

三月廿日 龍井 廿五日 延吉 二十六日 … 四月一日 …

조합은 이에 그 정의를 확립하야 지도함은 하로바삐 개최한다 한다.

難産中의 中學
四月엔 誕生
조선인입학은 四十%
近間開校의 馬山中學

【마산】 마산(馬山)에 있어서는 중등학교 설치문제가 대치되어오는 바 수년래로 마산공립중학교(馬山中學) 설립문제는 수년이래 벽두에 해결되지 못하엿스나 요즘 다행히 당국의 승인을 엇게되어 四월부터 개교하기로 되엇다 한다. 조선인 학생은 四十%로 되엇다 하며 … 입학지원자는 반반제에서 四十%로 되는 모양이라 한다.

緣故者인 五山高普에
蘆田再許可決議
一개 경무국속탁에 허가는 남가
總督府에 陳情키로

【신의주】 기보 = 평북 박천군내의 대령강(大寧江) 유역의 노전(蘆田)의 노초채취권으로 과거 十여년간의 연고자인 정주(定州) 오산학교(五山學校)에 재허가하지 아니하고 一개경무국촉탁에 허가한데 대하여서는 평북도회 최종일의 의원의 입으로부터 그부당사실이 폭로되어 비난의 적이 되엇거니와 이문제로 그후 여러의원간에 논의가 거듭되어 드디어 태천(泰川) 김병제(金炳濟)의원외 동의로 총독부에 대하야 적기노전은 고자이요 공공단체인 오산학교에 재허가하기를 바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가결하엿다.

朝鮮人의 土地所有는
一割五分에 不過
九대一의 눈물 겨운 현상
關北大都元山의 일

【원산】 다른 도시(都市)에 비하야 조선인의 경제력이 비교적 풍부하다고 지금까지 자랑하여 왓고 또 자타가 공인하여온 동해안 유一의 원산(元山)시내의 빈부상을 토지소유로 따저본다면 토지가격으로 원산시 총면적의 조선인 소유는 一할五분에 불과한 참담한 현상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제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여본다면 원산부의 총면적이 六백三十一정보에 총지세액이 만四천八백七十二원인바 그중 九할이상의 납세액을 부담하는 일본내지인은 지세가 一만一천七백五十八원으로 면적이 三백七十七정보에 소유인원이 六백十六인이고 조선인은 지세액이 二천六백三十二원에 불과한것으로 면적이 二백十二정보에 소유인원은 一천二백八十三인이 되고 기타가 지세액이 二백二十원으로 면적三十二정보에 소유인원이 三十一인이라고 한다.

洛江流域災民들
滿洲移民에 不應
이주조건이 불리한 탓으로
慶南道各郡에 再通牒

【부산】 재작년 가을에 남조선 수해의 재민을 대량으로 만주국영구(營口) 안전농촌(安全農村)으로 이민시키려고 총독부당국에서는 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와 상의하고 이민계획을 세워가지고 금춘에 총독부안에서 一천호(戶)를 또 경상남북도에서 합六백호를 전라남북도에서 영구 안전농촌과 철령(鐵嶺) 방면으로 이주시키고저 각도에 통지로 모집중이라는바 경남에서는 이주지원자가 적으며 나동강유역에서 백호를 모집하고저 하엿스나 지원자가 업서 금번의 이민은 선발이 확정된 이주민의 조건과 달라 이비는 전부자담인데 대부하여 주어 여부환상을 하게하고 한집에 최저장정二명이상이잇는 사람으로 모집한다 한다. 경상남도에서는 낙동강유역에 전번주조건이 전파되라 그러한지 작년 一년의 풍년을 마지하야 다소생활의 안정을 얻엇음인지 응모자가 적어 지난十二일에 도청에서각군으로 직접통장하야 이민을 모집하고 응모자의 자격을조사하여가지고 오는四월二十일안으로 목적지까지 이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數年來宿望의
市場設置期成會

【대전】 근래 대전(大田)의 발전은 목척(木尺)방면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수년래 목척부근도로변에 장보는 사람이 만하 미곡상과 시탄 시장을 형성하야 가게를 벌이는데 경찰에서는 허가없는 시장으로 취체를 하고 시장이라 하여 왓으나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도 여전히대흥집을 이룬 형편이라는바 그리하야 초량방면의 부회의원들은 十七일에 이시장설치를 대전부회에 건의한바도 잇엇다는데 지난十一일은 춘일정(春日町) 중촌정(中村町) 본정(本町) 북정(北町) 용두정(龍頭町) 대흥정(大興町) 연병정(錬兵町) 유정(柳町) 四十여명이 공주옥(公州屋)에 회합하야 적극적으로 시장설치에 대한 긔성회를 조직하고 관계각방면에 위원을 선정하야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엿다 한다. 그런데 시장위치는 영정(榮町) 부근 광장에 김갑순(金甲淳)씨의 토지 二천여평을 五년간 무상대부의 승락까지 얻어가지고 위원조커모의 신탁과 미곡에 한하야 이시장을 목표한다고 한다.

群山에 「體育館」遂實現
【군산】 군산(群山)체육계에 잇어 오래동안 현안이던 「體育館」은 금년도 군산부예산에 계상된 모양인바 이에 대하야 체육관계자들은 그의 후보지로 영화정(榮町)이 가장 적당하다고 결정된 모양이라 한다.

永興에도 尺雪
【진흥】 춘분(春分)이 이제 一주일밖에 남지 안햇건만 영흥(永興)지방에는 때 아닌 눈이 한척(尺)이상 내렷다. 이 지방은 작동이래 눈은 그다지 오지안코 하유한 혹한만 계속되어 이 눈으로 말미암아 눈이 나리지 아니하면 가뭄은 한해의 심각하다 농가는 이 눈을 대환영하고 잇다 한다.

移住民激增으로
列車增發希望
【도문】 초순경기를 앞두고 도만(渡滿)하는 농민이 만타하는 바 매일 一차씩 발착되는 도가선(圖佳線) 열차에는 초만원으로 금년 이주민이 무려 수만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국에 열차증발을 요망하고 있으며 … 도문역에서 이것을 목도하고 협화회(協和會) 도문역분회에서 이주민안내소를 설치하리라 한다.

國有林開放
火田民救濟
黃海道會에서 質問

【해주】 황해도회에서는 수백호의 화전민이 신계(新溪) 곡산(谷山) 등 지를 중심하야 널리어 잇는 바 이 화전민에게 수안(遂安)에는 널은 미간지(국유임야)가 잇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나무를 베어 화전을 일구니 이에 대하야 도당국은 어떠케 생각하느냐고 十三일 황해도회석상에서 곡산 이귀섭(李龜燮)씨가 질문한데 도당국은 앞으로 생각할 터이라는 답변이 잇엇다.

本報讀者爲해
無料診察施療
【정읍】 금번 새로 정읍 진흥 조혜동(趙惠童)씨의 본보독자를 위하야 개업한 조혜동 의사는 본보독자에게 무료진찰을 실시하기로 되엇는데 一반독자는 만히 이용하야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丙子麥凶豫想코
一攫千金夢
◇일본보리 사두엇다가
釜山에 積麥八萬俵

【부산】 병자년에 보리흉년이 들엇다는 전례에 비치고 또한금년에 병자년이라 기후가 괴상하야 흉한과 적설이 계속한 관계로 때아니가 대두할 거래에 보리흉년이 닥처온다는 바 부산의 주최에 의하야 부산(釜山) 지방에는 벌서부터 상인들이 一확천금의 꿈을 꾸고 일본내지에서 보리를 구입하야 적재하엿다 가마에 쌓어두고 팔려고 七八만표 (俵) 를 준비하여노코잇는데 이것으로 보아 민간에 최고가격이 때에 이른다면 일본 보리쌀의 폭등이 예상된다고 한다.

玄海灘渡航者
二千七百餘名
二月中全南統計

【광주】 지난二월중에 전라남도내에서 일본내지로 건너가고저 한 사람을 조사하여보건대 전자는 二천七백五명이라고하며 후자도 一천六백八十九명이라고 한다.

保聖女校卒業式
【순천】 순천보성여학교(保聖女學校)제十二회졸업식은 지난 十三일 오전十一시 순천신을당에서 거행하엿는데 금번 졸업생은 八十一명 …

승녀후제(承女後第六)회졸업식이 지난 十二일 오후二시부터 동교 강당에서 열리엇는데 금번 졸업생은 八十一명인데 그중에 상급학교지망자가 四十五명이고 취직희망자가 九명이며 그중에 우량한 성적을 가진자는 다음과갓다 한다.

◇優等生=宋千生、元科李 ◇皆勤賞=平澤竹暾八、日本留學四、其他四

佛國寺境內
賣店에 火災

【경주】 경주(慶州)의명찰불국사(佛國寺)경내에잇는 고전물매점(古物賣店)에서는 지난十一일 오전한시경에 돌연 불이붙어 삽시간에 전소하야 손해약三천원을 내엇다한다 동매점은 근일에와서 사람의 거처도 하지안흐며 오래문을 닫어두엇고 발화원인은 의복을 내리훔어간일이 잇을면인 대 통연화재를 입게 되엇으므로 혹은 방화가 아닌가하고 경찰당국은 조사중에 잇다 한다.

咸興永生女高卒業式
【함흥】 함흥 영생 녀자고등보통학교(咸興 永生女子高普校)…

慶南道議席上서
新聞記者侮辱
곽윈씨의 실언취소로 낙착
記者團의 反省要求로

【부산】 경북도회에서는 산구(山口)의원의 반산(反産)론으로 크다란 문제가 야기되엇는데 경남도회에서도 역시 산업조합문제로 신문기자를 모욕한 사건이 잇어 기자단의 결의로 한가지 문제가 야기되엇다.

지난 十一일 오후 곽윈(郭垣)의원이 산업조합문제에 대한 질문의 한가지 예로서 동래(東萊)산업조합이사 윈대윤(元泰允)씨가 산업조합의 이익을 옹호한 부정사실이 탄로되어 경찰에 검거되엇을때에 신문기자는 침소봉대적으로 원태윤씨가 사재를 一만원이나 저축하엿다는 모신문의 四단기사를 인용하야 신문기자는 직업의식으로 적은 사실을 크게 보도하야 종이를 만히 팔려하고 사실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보도한다는 불신문기사를 모욕하는 인사를 하엿다.

상에서 연출하야 동래산업조합사건이 태산명동에 서一필격이 되엇으니 이 사건으로 인하야 산조운동에 지장이 생기지 안는다는 것은 제一선에서 운동하지 아니하는 도간부는 알지 못한다고 하엿는데 신문기자단에서는 곽윈의원의 언어 도단의 폭론은 신문지의 본래의 사명을 모욕하는것이니 곽윈의원의 성의잇는 반성을 촉한다고 도청출입기자단에서 결의하야 성명서를 배포하엿는데 곽윈의원이 실언임을 자인하고 취소하야 문제가 낙착되엇다고 한다.

大同江은 解氷

【평양】 수부룩 쌓엿던 눈 한나절의 봄비가 녹여노코 얼음도 나날이 풀려가매 비는 바람이 봄기운을 실어오는 바 지난十三일부터 대동강이 해빙되어 고기잡이 배들이 떠나리니 할날 할날 대동강의 해빙…(사진은 해빙되어 가는 대동강)

十萬窮民 S·O·S
記者踏査 梁一泉 惠山

全洞里二百戶中에
絶糧戶數가 七十三
귀리 一斗에 勿驚三圓—三二圓
此機勿失코 奸商輩跋扈

三수갑산 말로 태평가를 불러가며 살어왓은 그래도 다. 삼수갑산(三水甲山)이란 곳은 풍족하게살 수는 업으나 생가지못한 어떤에 조상들 돈곳이다. 해무화(?)랑이라는 목가지를 맛처음으로 유어 옛날에 즐기던 그 귀리감자는 자자손손 와 갑자갈수는 자화를 감수고 말러해온 곳 여왓다.

인물은 모보지바는 처하기 자리잡고 잇는 동리에가 면 이에이 귀리감수 비례와 감자수확고 수확 풍성(?)하고 산비탈의 화전(火田)이나마 쪼아노흐면 비료도 하지안고 긴 넝는 귀리감자가 가득하여서 쌀 독에 쌓너코 팟독에 팟너코 그야 말로 태평가를 불러가며 살어왓은 것이다.

그리고 파부가 몽고의 로는 영으로 동리사람들끼리 서로도 우고 서로위하고 반들어가는 정성과 미풍(美風)은 찾어보기가 정육히 드물다.

그리하야 三수갑산의 인심도 변하기 시작하엿다. 여기저기서 「정말로 부서운세상이다」하는 말이 동리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다.

× ×

화전(火田)이엿에서 二十여호 주는것이 지난해에는 三수갑산의 수확도 어렵다고 한다. 평년작의 七八할의 감수가 아니나 낫도 대여보지 못하고 화전(火田)이 하라고 한다.

여기서의 농민은 三수갑산에는 소작농 자기의 소유는 별로 적은 자리의 소유지를 매각하고 한다. 그러면 그들의 현재 위에잇는 해가는 식량은 무엇인가.

강냉이 귀리(燕麥)를 혼합하야 먹는것이 보통이나 하나 자기 땅이 잇는 사람들은 一반 이하다. 무엇을먹고 살어가나 하고 생각하면 앞이 아득할 일이다.

지수도 재민이요 소작인도 자갓이 재민이다 비록 자작농이라고 하드라도 …

는 그대로 가마에 부어서 찜어 가로(粉)를 만들어 죽(粥)을 끄리는데 그이름을 강냉죽이라하고 막가리떡(?)이것은 마령서(馬鈴薯)를 갈어서 감분(甘粉)을 다뿌러버린 찌꺼기를 벗에말려서 밟아서 찌어서 떡을 만들어먹는다고 한다. 이런 기근지대가 아니고는 듯지도 보지도 못할 천하에없는 식료가 아닌가.

대오시천(大五是川)시내에만 총호수二백호에 죽을 끄리지못하여 끼니를 이어가지못하는 세민이 七十三호나 된다한다 지난번어느 원一입에 윤형진씨와 함께 사람에보니 세궁민七十二호에 무부거와 같이 구제를 엇어다 근근히 지내는데 초하로 남아취 끼니를 지내고 잇는 호수가 三十一호나 되므로 동면면장 노응준(盧應俊)씨는 자기의 주머니에서 三十二원을 내여 매호당 一원씩주어 한끼나마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어보게 하엿다 한다.

「얼어죽어도 사람만흔곳으로가야한다」는것이 그들이 사가지로 모여드는 원인이다 노동을 하려해도 할곳이없고 나무장사를 하려해도 모다 국유림이라 삼림주사가 섯으니 감히 장작한개비나마 가저올수가 잇을가.

대오시천에는 가만가만이 밤에 나무짐을지고 팔러오는 사람이 만타는데 그반면에 삼림보호구(森林保護區)의 문으로 들어가 귀신들을맛는 친구도 적지안타고 한다.

이땅의 미곡시세를 보라. 감자一斗에 八十전 내지一원 귀리쌀一斗 三원내지 三원二十전이니 예년에 비하야 三, 四배의 폭등이다 이런귀리를 이용하야 중간 간상배들은 돈을 벌려고 열안으로 화약하고 잇다.

삼림보호당국의 화전민 생활상황조사에 의하면 五是川區內 二二五「月」二一三三七八 土地所有 一,五七六五 年農作物收入 正租 四〇三石 燕麥 一〇,五三 五石 大豆 一〇,七六石 小麥 二石 馬鈴薯 五四,四三 石 粟 一〇五九石 大豆 一〇 二四六石 蕎麥 二,七二〇石 合計 八,〇六七,一石 支出

食料消費 燕麥 三,三九五石 大麥 三二〇五石 馬鈴薯 三,一六六四石 粟 八八七石 正租 一四二石 大豆 二九九石 蕎麥 一,六六六石 麥粉 一,〇六〇 石 衣服 四,一四五五圓 食料 品 一四六二,五一圓 雜支出三 四〇,七八圓 公課金 一二三, 〇五圓 敎育費 二六,七〇圓 借金利子二五六,五〇圓 食費 一五五圓 合計四二五八五六圓

이상의 통계에 의하야 각호의 수입을 평균 三九三九二, 五원으로 부면지출총계는 실로 四二,五八五六 원이된다. 평년작으로 그대로 농사를해도 해마다 二六六四원의 부채를 질뿐아니라 현재의 부채만 예이 七一, 七五원이라하니 매호당부채만 四十원을가지고 잇다고한다.

이제 이 三수갑산의 농민이 발갑 흉작이 견어되더라도 결국에 빗을지고 떠나게되니 三수 갑산의 인심은 변하지안흘수 없다. 지금은 八〇%가 죽을끄려먹지안하서는 안될형편이라하니 어느날에나 지나간행복한옛날을 다시꾸어볼는지.

—계속—

密林 (111)
金末峯 作 李靑駒 畵

황금의기사(黃金의騎士) (四)

상만은 정철을 집르고 어린시 눈속으로 차리갓다 하는 동안 차를 처위것다.

그는 문고리를 열고 방으로 들어왓다. 우두머니 책상앞에 앉엇스나 생각은 엉뚱 지나간 옛일로 한을 불어가는 것이엇다.

어머니가 얼마나 일본동안 미음하면 쑤어 대접도 못하엿엇다.

금순이와 나는 밥꾸렁으로 가서 이를 게다가 삶아 먹엇엇다 아—

상만은 정저 리를 치고 눈물감엇다.

김선생님이 나를 공부가르쳐 보시고 천재라 하시면서 보통학교에 보내셧다. 나는 일년동안에 무한 깃혜안에 세반을 뛰어 마침내 사년만에 보통학교를 마치엇다.

그뒤 나는 김선생님을 따라서 울로 올라오고 중동학교에 입학을하고 그때부터 고학을 시작하엿다.

글방을 집고 세상은 내말로 나갈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타인을 허망지 안토라 한다.

상만은 세상일을 몰랏고 고 생하든 다 무슨 상처를 입엇다 그는 돈만잇는 걸이 다 무한히 늘어 잘것이다.

「그러세는임죄……금순은그밤 상만은 도한편 어머니가 어른 발무분을 박꾸발통에 여러가지고 오면, 집을 향하여 그러보는것이엇다 상만은 울산(蔚山)으로 내려가서 장터에 사람 오족을 부어주고 짐을 부치고 고향땅으로 나서 발견을 배에 자목으로 인도하며 피산사항에 떠나게 된 동해안이엇다.

상만은 이자리에 휘엿인지 판결에서 주었는지 상만이 등사도그 소식을 보는 금순이가 용서도 그 리를 가져왓다.

「금순아 보아다고 올바는 한도시 내를 가겟보다 이 때문에 뭐 가겟보다」

금순아—아아—」

상만은 목이메여 우는듯하엿다.

그는 긴장된 얼굴로 세상을에

사하이지 못주일 이씨가 나를 대려가고 그리고 상만이 가 업셰상뎌 인해의 돈으로 하고를 마치엇다.

그뭇안아 그동안 나는어머케 지냇든고 주택, 천대, 멸시 하수도(下水道)의 구정물처럼 갓 흔생이 간난하고 외로운 나에게로 몰리고 솔려왓지… 상만은 입술을 꽉 다물고 허공을 노려보앗다.

「그리든동안 세상은 나에게 무엇을 가라처주엇느냐……

돈만잇으면— 되지못한 인간이라도 돈만잇으면 흥!

감자이 상만의 맘속에는 확확타오르는 불길을 감각하엿다. 세상이 별것이 아니다 돈만잇스면 천하를 호령 할수잇는것이다.

그러타 천하자도 지배자도 황금의 세력에는 온순한 종들이 되고마는 것이다 사람은 땀으로만 사는것이 아니라고 배 수는 말하엿지만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것은 아니다!

상만은 벌떡 이러낫다 그는 벽에걸린 붉은서 자수가 드러잇는 사 진틀을 내다보앗다 그리고 그속에 드리잇는 상만의 거치른 손끝에 「복수다 이십오년동안 눈물과 피로 흘려온 이인간사회에 향하야 수레우에서 호령할때까지 나는 모

너머운 스케—트를 켜내손에잇다 자형과 한강에서 스케—트를 약속한날이 리엿다는것을 생각하고 부대 해방은 놀아 저어지기를 고만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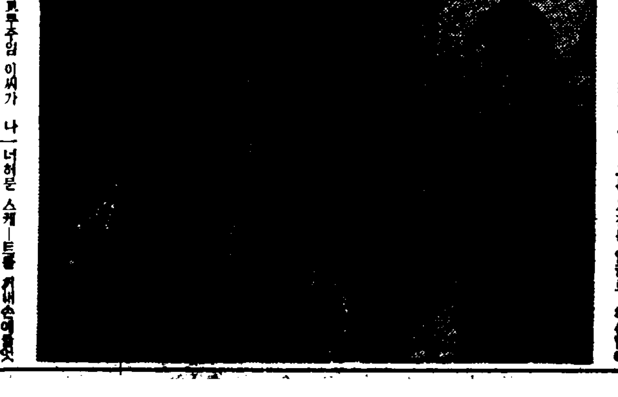
상만은 자리에 누엇스나 쉽사리 이른상기지도 안흔다 그러나 「재일 조혼 자세로 자 발하게 스케—트를 버엿다.

하는 이생각이 머리를 시작하자 상만은 어거지로 눈을감엇다 그는 다시 이러나서 전등에 불을 끄고 다시 이불을 눕엇지 갓다 겨우 고 되돌아가 가리앗서 기

이라하여 상만의 머리 괴상한 숨의 문제니 그의한몸 하부의 생활에 정함 자격을 접근할 긔회를 노리고잇는 것이다.

잇흔날 아침 폭연 상만 전대로 남이게 잇흔바 상만은 흉측 들어서 거름을 넛속을 실피고 그 대하고 잇는것 돌아

서 어려운 스케—트를 가지고 꽈 터 한손에 좀 …



特產朝鮮의 富態

五風十雨好天候 年產實로十萬餘圓

梁山의 柿와 栗

【梁山】 慶南 梁山에서는 特産物이라고 자랑할것은 감(柿) 밤(栗)으로써 果物界의 王이라 果 色澤이 鮮美 美味

卓絕

하야 멀리까지 輸出 하야 가장 聲價가 높다

距今 五十年前 上北面 ……은 前後 左右에 몇다리 代用으로 ……

釀成

하게되어 只今은 年 產額 一萬八千餘 圓 年產額 十萬圓이란 巨額이 된것이다

果汁

二月中 金融概況

朝鮮內滿鐵에 地方稅를賦課

十四日府令發表

全滿貨物配車

四月一日부터圓滑

殖產契業務 各處一齊開始

諸般事業範圍決定

農試에委囑하야 各肥料를試驗

十一年度에五千圓豫算計上

朝鮮農會新事業

自作農創定 資金繰上償還

藥用 치키타리스 栽培와效用 (下)

張 基 〔記〕

一人一段步主義로 藥草薄荷를奬勵

廢川埋沒地를 拂下하야 計劃

咸南農務當局서立案

朝鮮初有의 肥料講習會

光州에서開催

產業俱樂部

七面鳥價格

苹果의黑點

鑛業權動靜

鑛業權設定

鑛業權移轉

頭痛을 조케하는 學生의藥
はれやか로 乙이없어지는 通信簿

博士創製의 毛生藥

毛生藥 후미나인

發賣元 東京藥院

速히낫는淋疾藥

特製 리베一루

꼿꼿이 끝음 압흠

竹村製藥所

肥滿劑

喫煙家의 齒磨スモカ